"환자들 어려움 수렴해 더 나은 정책 수립할 때"

정 은 경 팀장 | 보건복지부 질병정책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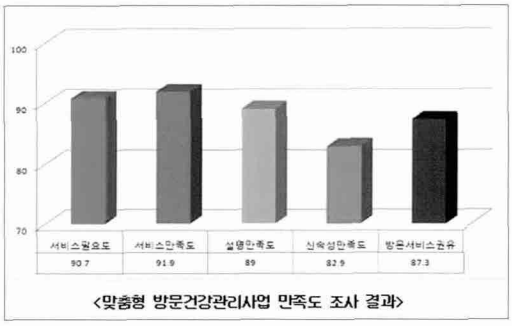
해가 갈수록 당뇨병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그만큼 국민들의 당뇨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으며, 이제는 당뇨병이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국가가 나서서 국민들에게 예방법을 알리고 이미 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보건복지부 질병정책팀 정은경 팀장을 만나 당뇨병환자의 증가를 막고 환자들이나 의료진들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책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봤다.

지난해 당뇨정책사업의 성과는 무엇이 있을까요.

– 복지부는 심 · 뇌혈관질환 및 당뇨병의 예방, 관리를 위해 2006년에 심뇌혈관질환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으며 2007년에는 1차년도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심 · 뇌혈관질환 및 당뇨병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개선시키기 위해 다양한 홍보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대한당뇨병학회 등 7개 전문 학회로 홍보위원회를 구성하여 TV 홍보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4월부터는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제도를 도입하여 중년기가 시작되는 40세, 노년기가 시작되는 66세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심뇌혈관질환 및 당뇨병 등의 주요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해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건강검진을 제공하였으며, 2차 건강진단을 통해 의사로부터 심뇌혈관질환 위험도 등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를 상담 받고, 흡연, 음주, 신체활동, 영양, 비만 등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는 건강위험행태 교정을 위한 평가와 상담을 받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고혈압, 당뇨병의 지속치료율을 높이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를 선정하여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

지난해 지역사회 중심의 당뇨관리와 교육활성화를 위한 사업,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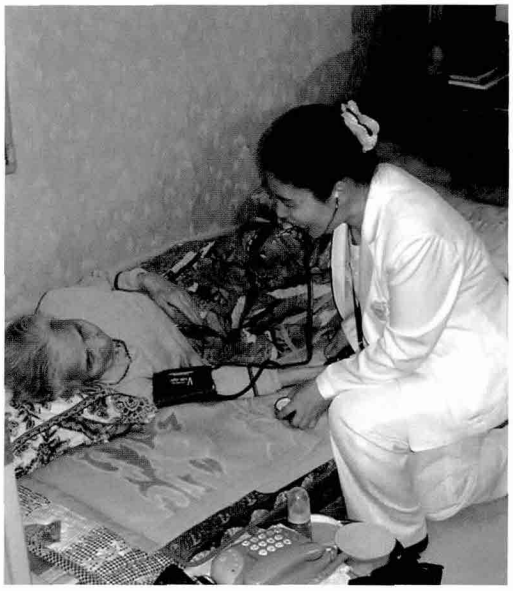
– 지난해 9월부터 대구광역시에서 약 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시범사업은 먼저 지역주민들의 고혈압, 당뇨병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 홍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구별로 상설교육장을 1개씩 신설하고, 영양사 및 운동지도 담당자 등을 배치하여 지역주민 및 환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자치센터,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자에 대한 교육은 기본교육, 심화교육, 개인별 상담 등으로 구성하여 환자에게 적합한 교육을 단계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혈압, 당뇨병의 지속치료율을 높이기 위하여 등록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동의를 받아서 의료기관이 환자를 등록하면, 전산관리시스템에 의하여 SMS, 전화 등을 통해 의료기관 방문일정안내 및 누락안내(Recall & Reminder)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환자 본인의 혈압 · 혈당 수치 및 관리 상태에 대한 안내, 질병관리에 대한 교육 및 상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들의 지속치료율 개선을 위해 외래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을 월 4,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07년 12월말 기준으로 약 2만여명 이상 환자가 등록하여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전국 보건소에 약 2천여명의 방문보건인력이 투입되어 주로 고혈압, 당뇨병, 뇌졸중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해 관리해주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당뇨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검진비용과 약물치료 등에 대한 보험확대는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으며, 고령 환자나 당뇨로 인해 장애를 얻게 된 환자들에 대한 관리 및 복지사업은 어디까지 추진되었는지요. 2008년 추진되는 새 정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 대구광역시 등록관리 시범사업에서 고혈압, 당뇨병의 합병증 검진비용(본인부담금)을 08년부터 지원하는 것을 현재 검토 중입니다. 특히 당뇨병의 경우 실명, 신부전증 등 합병증의 조기발견 및 예방이 매우 중요합니다. 환자 교육 및 의료진에 대한 홍보, 검진정보관리 등을 통해 합병증에 대한 검진율을 높이고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보험확대에 대해서는 당뇨병의 경우 암 등의 중증질환에 비해 보험의 보장성이 비교적 높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추가적으로 보험급여확대가 필요한 영역이 있으면 이를 파악하여 보험적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2008년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은 무엇이 있는지요.

– 우선 2007년 추진하던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지속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9월에 시작된 대구광역시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사업을 2008년 한해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평가를 통해 확대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로운 계획으로는 내년에는 지방 국립 대학교 병원 3개소를 선정해 심뇌혈관질환센터를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센터를 중심으로 표준적인 임상진료를 실시하고 지역 주민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지역 보건의료인에 대한 교육 및 훈련,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연구 등의 역할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센터를 지정하고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당뇨병환자의 수는 갈수록 늘어나는데 그들을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은 매우 부족합니다. 2008년 의료진을 위한 당뇨교육 및 연구, 당뇨병 전담 요원 투입 또는 확충 등의 사업은 무엇이 있을까요.

– 당뇨병환자 대부분이 일차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기 때문에 1차 진료에서의 당뇨병 관리를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문학회를 중심으로 당뇨병 표준진료지침을 제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 의료인 보수교육 때 당뇨병 관리에 대한 교육이 많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당뇨병 등의 만성질환은 환자가 스스로 일상생활 속에서 식사, 운동 등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하며, 지속적인 약물복용과 혈당 모니터링, 합병증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자가 관리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환자의 자가 관리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교육, 상담 등을 담당할 전문 인력 개발과 서비스 제공체계를 만드는 것이 매우 필요하며, 방안 개발을 적극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사람들에게 당뇨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환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예비 환자들을 위해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대국민홍보캠페인 등이 국가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데, 계획이 있으신지요.

– 2008년 홍보계획은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이 되지는 않았으며, 심뇌혈관질환 홍보위원회를 통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올해에는 질병관리본부가 건강예보제를 도입하

여 국민들에게 근거기반의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정보를 주기적으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제공할 계획입니다.

당뇨병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건강검진제도 개편을 통해 당뇨병 및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을 조기에 찾아내어, 당뇨병 예방을 위한 정보제공 및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일본이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하여 대사증후군을 목표 질환으로 선정하여 08년 4월부터 40세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매년 건강검진을 실시하며,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건강지도를 통하여 대사증후군을 줄여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조기 발견하는 것뿐만 아니라 질병 전단계 고위험군에 대한 건강지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한국당뇨협회는 당뇨병환자들을 위한 공개강좌, 캠프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조건 등으로 어려운도 많습니다. 이에 대한 지원 계획 및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 당뇨협회는 당뇨병에 관련한 홍보 및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부가 매년 만성질환 관련 협회와 같이 홍보,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올해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실제 현장에서 환자들이나 의료진들의 의견을 듣고 협회에서 그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저희에게 알려주시고 함께 의논해 같이 방향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병환자와 당뇨를 예방해야하는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지금은 인구의 10명 중 1명이 당뇨병환자이며,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는 예방에 힘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복지부는 앞으로 당뇨병환자가 증가하지 않도록 국민의 건강증진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환자분들께서도 당뇨병은 일상생활 속에서 관리되어야 하는 질환인 만큼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교육도 열심히 받아 자기관리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병장수'라는 말이 있듯이 당뇨를 관리하다보면 건강을 그만큼 챙기게 되고 이로 인해 다른 질병들도 예방하여 건강을 유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모든 분들이 올해 한해 동안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글 / 신선경 기자